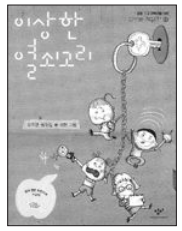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이상한 열쇠고리=제13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공모 저학년 부문 대상 수상한 오주영씨 동화집으로 단편 동화 네 편을 묶었다. 표제작 '이상한 열쇠고리'는 우연히 열쇠고리를 주운 뒤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지만, 결국엔 그 소원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의 하루를 재미나게 그렸다. <창비·8천500원>



▲도서관의 비밀=대만작가 퉁자의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형식의 추리 그림책. 도서관에서 일을 한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도서관 사서인 '나'는 도서관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낀다. 이상한 소리와 정체불명의 빛발과 그림자를 쫓으며 누구인지 밝혀내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놓치고 만다. <그림책·9천원>



▲에너지 도둑 다블라=고교 지식 박물관 시리즈 36번째 책.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지구를 찾아온 외계 소년 '다블라'의 지구 여행기를 통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석유와 석탄, 천연 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서부터 위치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전기 에너지, 태양 에너지까지를 소개한다. <한솔수북·7천900원>



▲치킨마마=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12편의 인도 동화를 한데 모았다. 명상·모험 등 인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스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으로 치킨마마와 종키, 셀뎀신을 태우고 높이로 돌아오는 40미터 크기의 공룡 이야기 등이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가문비어린이·8천900원>



▲열두 동물 띠 이야기='소중한 우리 문화 지식여행' 시리즈 4권으로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질게 되는 열두 동물 '띠'에 관한 지식을 그림과 함께 쉽게 풀어 썼다. 소·호랑이·토끼·용·돼지 등 열두 띠 동물에 얽힌 아주 특별한 옛이야기와 띠 동물의 의미와 상징, 그에 관한 민속까지 자세히 밝혀 놓았다. <현문미디어·1만원>



▲나를 변화시키는 대화의 힘=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기초로 일상생활 중 '대화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따른 대화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베이비북스·9천원>



▲아빠가 나타났다=총 5선 아빠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렸다. 흠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았던 가족이 춤을 통해 화해한다는 이야기다. 이충현씨가 썼으며 제5회 마해송문학상 수상작이다. <문학각지성사·9천원>

▲마음을 보았니=생동감 있는 시적 언어와 예술성 돋보이는 그림으로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게 하는 그림책. 엄마가 아이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그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비유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장면에 그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동물을 그려 놓았다. <시공주니어·9천원>

들꽃같은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재미 '생오지'서 잊혀진 것들을 찾다



4년 만에 창작집 '생오지 뚝부기' 펴낸 소설가 문순태씨



소설가 문순태(68·전 광주대 문학과 교수·사건)씨는 2006년 광주대를 정년퇴직하고 고향인 담양군 남면 '생오지'로 돌아갔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아 오지 중의 오지라는 의미의 마을, '생오지'로 불리는 그곳에서 그는 열네 가구에 불과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느리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자연인이 된 문씨가 귀향 이후 쓴 중·단편 소설들을 엮어 창작집 '생오지 뚝부기' 냈다. 2005년 '울타리'이후 4년 만이며 소설집으로는 열 번째.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씨는 "갑자기 변잡했던 도심에서 떠나 심심해 지니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게 됐고 소소한 것들

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 심심해지지 않기 위해 글도 열심히 썼다"며 "농촌생활은 풍요롭기보다는 빈곤하고, 화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빴다"고 했다. 이번 작품의 대부분이 작가가 거주하는 '생오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등장인물 또한 농촌마을에 있을법한 사람들. 어린 시절 누나가 불러주었던 노래 '오빠생각' 속 뚝부기를 찾아 헤매는 '나'를 비롯해 고향에 혼자 남아 87세가 되도록 농사를 짓고 사는 청국장 할머니, 500년 된 소나무 때문에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는 오만석과 조일두 할아버지, 고령제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월남참전용사 조씨, 부랑아처럼 전국을 떠돌아 고향에 돌아와 별장지기로 살아가는 무명화가. 그런가하면 월남에서 시집과 청국장에 맛을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에 적응해가는 결혼이주 여성 쿠엔 등 모두가 '생오지' 마을 사람들이거나 농촌의 현실이 만들어진 생생한 인물들이다.

문씨는 "도시 인물을 소설로 형상화할 때는 관념적으로 만들었는데 고향에 돌아오니 이곳은 삶이 소설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생생한 인물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제작 '생오지 뚝부기'를 비롯 모두 8편을 담은 이번 창작집은 귀향 이후 달라진 작가의 작품세계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산림화 과정에서 농경사회의 정과 가치있는 전통이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다양한 화해의 방법으로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농촌이라는 소외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씨는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다룬 소설 연재를 마무리했으며 이를 손바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완결권 격인 '타오르는 별들'을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인 11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책만드는집·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꿈 좋아하면 백수로 오래산다

청춘불패 이외수 지음



베스트셀러 '하악하악'(해냄 펴냄)의 작가 이외수(63). 요즘 TV 출연이다. 광고할 영이다 해서 바쁜 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작가는 세상에 신음하는 우리의 청춘에게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청춘의 존재를 확인하고, 스스로 활력과 희망을 발견할 것"을 권유한다.

'이외수의 소설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에세이집은 작가가 2004년에 냈던 산문집 '날다 타조'를 바탕으로 한 책. 여기에 다 이씨가 새로 집필한 원고와 '하악하악'에서 함께 작업한 화가 정태련 씨의 세밀화를 더했다.

이씨는 "청춘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며 "자꾸만 움츠러들지 말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말한다. 특히 그가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네는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한마디가 애사투이 없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와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유년기, 빈곤과 열등감, 자살충동에 시달린 그의 과거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이 시대의 백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 이씨는 "자신의 재능에 비추어 실현이 불가능한 꿈은 분명히 개꿈이다. 허구한 날, 개꿈과 개꿈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오래 백수로 살아야 할 확률이 높다"고 강하게 충고한다. <해냄·1만2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난과 예술에 대한 고흐의 고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



현대인의 뇌리에 서양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의 하나로 각인된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그러나 그는 '황야의 외딴 영혼'으로 불우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38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는 그가 남긴 909통의 편지 가운데 고흐의 영혼을 알기 위해 꼭 읽어야만 할 편지 125통을 영남대 박홍규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은 '영혼의 동반자이자 피난처'였던 동생 테오에게 보낸 것으로 빈센트와 테오는 평생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삶과 예술에 대해 교감하고 대화를 나눴다.

"예술은 질투가 심해. 인공은 기분에 밀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가 좋아하지 않아 따라서 예술의 비위를 맞춰야해(종락)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파서는 안돼. 내가 예술을 어떻게 보는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해. 나의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겠지만..."(편지 250, 1882년7월21일, 수신인: 테오 234쪽)

많은 편지들을 통해 평생 화가의 길을 걸으며 죽는 순간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가난과 예술에 대한 고흐의 고뇌를 절절히 느낄 수 있다. <아트북스·2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르포 작가가 본 美 신자유주의

거꾸로 달리는 미국 유재현 지음



지난 20여 년간 소설가로, 르포 작가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서구 근대화의 그늘에 가려진 아시아의 역사문화와 쿠바 사회주의의 가능성 등을 탐구해 왔던 유재현씨가 이번엔 신자유주의와 패권주의 중심 미국을 직접 해부했다.

'유재현 언더로드' 시리즈 다섯 번째 권 '거꾸로 달리는 미국'은 저자가 2007년 직접 자동차로 미국을 일주하면서 남긴 기록과 2009년 다시 방문해 느낀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의 풍경을 근간으로 구성했다. 서부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62일 동안, 자동차로 2만5천km를 달린 이 독특한 여행에서 저자는 반미주의와 야민의 근원인 미국을 탐욕과 적대의 제국이며 오래된 패권의 피로가 층층이 쌓여진 나라로 묘사한다.

전략의 역사를 영토 확장의 역사로 정당하게 가르치는 교사, 낯선 아시아인에게 적대감부터 보이는 경찰과 자본주의의 외부로 밀려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두려워할지언정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초상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또 이러한 풍경이 곧 '유사-미국'(Pseudo-America)의 단계에 진입한 대한민국에도 불어 닥칠까 모른다고 염려하며 "세계화"란 이름으로 미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화를 완성시킨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림비·1만8천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 (02)223-1140, 5210 번 011-602-22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에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 (02)261-8949 번 011-602-2233
(신수동 543-511 두원타운입구 삼거리)
▶ 판매매매
-광주 금보동 동신동지 1,3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양동동(현동)동지 2,250㎡ 매가 1억 2,8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 건물매매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 주유소매매
-남구 남동 구인동 지대(200㎡) 매가 1,600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를 중개 전문)
공시지가 2억 2천 2백 11억 2천 2백 원
▶ 상입지역 130P 삼각지
공시지가+건물과포함 13억 7천 7백 원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 8억 아파트 1300세대 상가매매 2억 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방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직할
공시지가+건물과포함 6억 6천 3백 원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입지역
▶ 공시지가+건물과포함 7억 6천 4백 원
▶ 대 100P 건 300P 상입지역
▶ 상입지역 방 약 95p 공시지가 3억 5천 5백 원 매가 2억 4천
▶ 30m 도로 접
▶ 장정가 3억 8천 6백 원 매가 2억
▶ 점선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층
▶ 2층 사무실
32억 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 원 빌딩 2350만원 용 13억 포함
▶ 장정가 45억 매가 24억 5천
▶ 빌딩급매 대지 500p 건평 1000p 지하 1층, 지상 5층 전채공실
환승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동지 6억 포함
▶ 환승, 엘리, 요양원, 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도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각수 식재 딱 4억 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 장성입 아사습득장, 필장 100000p 4억 7천
공시지가+건물과포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번영 공인중개사
☎ 062)531-4665
동립2지구동립병원앞
모빌
※수익성좋은물건다량확보※
▶ 신축모텔(매매,임대)
매매 10억~35억선
(용자안고 3~20억투자)
임대: 보증금3억~7억
월: 800~2500만원선
▶ 무인모텔(매매,임대)
매매: 20~50억
(용자안고 10~20억투자)
임대: 보증금4~7억
월: 1000~3000만원
▶ 일반모텔(매매,임대)
매매: 4억~30억선
(용자안고 3~10억투자)
임대: 보증금1억~4억
월 100~1500만원
▶ 대중사우나(매매,임대)
매매: 4억~50억선
(용자안고 3~20억)
임대: 보증금1억~4억선
월 200~1000만원
▶ 고시원(매매)
매매: 5억~12억선
(용자안고 3~7억선)
※매매,매수,임대,임차
물건접수합니다.

서울뉴-타운에정지투
강남·강북·강서 지역
실투자액 : 9,000만원~2억까지
(용자없음)
강남대로변빌딩임대
논현·역삼·테헤란로·잠실
실투자액: 10억~30억
정직과 신뢰의
수원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 062) 959-1033, 02)2607-7222
010-7723-1033

경매전문회사
HK (주)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 ☎ 062)228-6600
전화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용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전금 대출업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